

치 사

따스한 햇볕과 싱그러운 바람이 만물을 움트게 하는 생명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절기에 감로탱화의 지화장엄(紙花莊嚴)을 재현하고, 많은 시민에게 감동과 행복을 나누는 진력에 치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불교 전통지화의 맥을 이어온 정명스님의 오랜 헌신으로, 전통문화에 배어있는 선대(先代)의 수승(殊勝)함을 친절하게 만나는 향기로운 시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로탱화는 전법의 역사와 민중의 삶, 그리고 예술성이 조화롭게 담겨있으며, 시대마다의 사회 문화적 흐름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고귀한 자료입니다. 더불어 생화(生花)를 대신하는 지화가 아니라, 자체의 특별함으로 충분히 예술적이며 종교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써 감로탱화의 지화장엄은 당시 사회에서 지화공예가 갖는 가치와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사료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영산재나 수륙재 등, 여러 재가 있을 때면 지화를 공양하여 장엄하였습니다. 재를 올리는 마지막에 지화를 소지(燒紙)하여 그 마음이 승화하고 복과 덕으로 망자의 해탈을 기원한 간절함은, 청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지화를 조성하는 커다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미혹의 세계를 벗어나는 그 경계에서 삶의 인연을 성찰하게 하는 각별한 정진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고귀하고 숭고하면서도 간절한 염원이 생동하는 작품을 통해, 많은 대중들이 지화가 함의하는 무량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뜻 깊은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지극한 정성이 있으면 다가오는 행복을 내다볼 수 있듯이, 일생의 정진을 담아내고 일념의 정성을 다하신 정명스님의 성취가 많은 분들이 행복을 찾아가는데 소중한 안내자가 되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1년 3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